표준점수·백분위 최적조합 찾아라

중하위권 눈치보기·재수생 강세 … 경쟁률 상승 변수

■ 수능 정시 지원 전략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7일 발표됨에 따라 올해 대입 정시모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수능의 난이도가 높은 탓에 상·중·하위권의 구분은 더 명확해졌지만 17일 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에서 중위권을 중심으로 눈치보기와 막판 접수, 하향지원 현상 심화 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치밀한 지원전략에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수생 강세, 경쟁률 상승 등 고려해야할 변수도 적잖다.

◇안정적인 지원 전략 짜야 = 일단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준점수는 성적분포(평균 및 표준편차)에 따라 상대평가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평균점수가 낮은 영역에서 높아지고 특히 상위권 점수대에서 변별력은 더 커진다. 특히 총점은 같더라도 영역별 반영비율, 영역별 가중치에 따라 당락이 엇갈릴 수 있다.

이투스청솔학원 오종운 평가이사는 "상당수 대학에서 인문계는 언외탐, 자연계는 수외탐 3개 영역을 반영하므로 점수를 지원 전에 숙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선발 노려라 =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수능 우선선발 전형이나 수능 100% 전형을 공략해야 한다.

주요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모집단위에서 30~70%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경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이 모집인원의 50%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한다. 특히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은 수능 우선선발 비율이 70%에 이른다. 서울시립대는 전년도 50%에서 70%로, 서강대는 60%에서 70%로 선발 비율을 높였다. 성균관대는 올해 50%를 수능 우선 선발로 뽑는다.

대성학원 이영덕 소장은 "올해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수시 등록 마감 이후 각 대학의 최종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3번의 복수 지원 기회를 활용해 모집 규모가 큰 가,나군 중 한 곳에는 안정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 등급구분표준점수

■ 언어

등급	등급구분점수	도수(명)	비율(%)
1	129	33,300	4.98
2	123	45,583	6.82
3	116	80,925	12.11
4	108	107,770	16.13
5	97	143,475	21.47
6	86	107,305	16.06
7	72	80,954	12.11
8	60	42,411	6.35
9	60미만	26,616	3.98

■ 수리

등급	수리 '가' 형			수리 '나' 형		
	등급구분점수	도수(명)	비율(%)	등급구분점수	도수(명)	비율(%)
1	132	5,988	4.13	139	20,180	4.19
2	124	10,888	7.50	129	38,159	7.93
3	116	18,626	12.83	117	56,418	11.72
4	107	24,600	16.95	103	79,654	16.55
5	96	27,860	19.20	89	96,704	20.09
6	83	24,940	17.19	83	80,973	16.82
7	72	16,405	11.30	79	58,973	12.25
8	65	10,386	7.16	75	36,733	7.63
9	65미만	5,431	3.74	75미만	13,619	2.83

■ 외국어(영어)

등급	등급구분점수	도수(명)	비율(%)
1	132	28,549	4.34
2	125	45,912	6.98
3	117	87,923	13.37
4	107	110,056	16.73
5	95	130,613	19.86
6	82	109,874	16.71
7	72	76,664	11.66
8	66	43,731	6.65
9	66미만	24,373	3.71

■ 수능 용어풀이

7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발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오전 전국의 수험생 66만8000여명에게 개별 성적표를 배부한다.

개별 성적표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시된다.

▲표준점수=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표준점수는 영역별 응시생 집단의 특성과 선택과목의 특성 차이로 발생하는 난이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난도가 높은 과목을 본 학생과 비교적 쉬운 과목을 본 학생이 각각 받는 점수 차이를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원점수 평균이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크게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진다.

즉 올해 수능에서는 수리 가형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작년과 비교해 11점이나 상승했다.

▲백분위= 특정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비율(0~100)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수험생이 수리영역에서 표준점수 70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응시자가 전체의 75%라면 백분위는 75가 되는 식이다.

▲등급=수험생의 영역별, 선택과목별 성적을 1~9등급으로 나눠놓은 것을 의미한다. 1등급은 표준점수 상위 4%이고 2등급은 그다음부터 상위 11%까지, 3등급은 또 그다음부터 상위 23%까지며 마지막 9등급은 최하위 4%가 해당한다.

/연합뉴스

전국 주요대학 정시 전형방식

◇ 서울

대학	내 용
서울대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에서 1215명을 선발한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1단계에서 수능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의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학생부 50%(교과영역 40%, 교과외영역 10%), 수능 20%, 논술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교과성적은 과목별 석차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하며 예체능 교과목은 원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만 차례로 감점한다. 교과외영역은 출결과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 평가항목이 2개 이상 기준을 만족하면 만점을 준다. 논술고사 문항 및 고사 시간 등은 인문계열은 3문항에 300분, 자연계열은 4문항에 300분으로 전년도와 같다.
건국대	정시 '나'군 일반학생전형은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711명을, '다'군 일반학생 전형은 수능 70%, 학생부 30%를 반영해 694명을 선발한다. 수능은 영역별로 가중치를 둬 인문계는 언어 30%, 수리 25%, 외국어 35%, 탐구 10%를 반영하고, 자연계는 언어 20%, 수리 '가'형 30%, 외국어 30%, 과학탐구 20%를 반영한다.
경희대	서울캠퍼스는 '가'군 753명, '나'군 460명, '다'군 65명 등 1278명, 국제캠퍼스는 '나'군 729명, '다'군 354명 등 1083명을 뽑아 모두 2361명을 선발한다. '가'군과 국제캠퍼스 '나'군 인문·자연계열은 모집인원의 50% 내외를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생부 30%와 수능 70%를 반영해 뽑는다. 서울캠퍼스 '나'군과 국제캠퍼스 '다'군 일반전형(인문·자연계열)은 수능만 100% 반영한다.
고려대	안암캠퍼스는 정시모집 '가'군에서 일반전형으로 10186명 이상을 뽑는다. 일반전형에서는 모집인원 70%를 수능 100% 반영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수능 50%, 학생부 50%를 본다. 올해부터 탐구 영역은 2과목 이상 응시하면 되고 일반전형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응시하면 탐구 영역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
국민대	'가·나·다'군에서 일반학생 전형으로 모두 1431명을 뽑는다. '가'군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우선선발하고 나머지는 학생부 30%, 수능 70%를 반영해 선발한다. '나·다'군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합격생을 뽑는다.
동국대	정시 '가'군 일반전형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영화영상학과, 연극학부(이론)는 수능 100% 선발 방식이다. 정시 '나'군 일반전형(인문계열, 자연계열, 영화영상학과)은 수능 60%와 학생부 40%로 학생을 선발한다. 연극학부(실기) 전형과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문예창작학과는 수능 30%, 학생부 30%, 실기 40%를 반영한다.
명지대	서울 인문캠퍼스는 정시 '나·다'군에서 529명을 선발한다. '나'군 일반전형은 학생부와 수능, 실기를 고루 평가하며, 문예창작학과와 음악학부 등 특성에 따라 항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 '다'군 일반전형은 수능만 평가하며 음악학부와 영화뮤지컬학부는 실기를 60~67% 반영한다.
서강대	정시 '나'군 일반전형에서 569명을 뽑는다. 수능성적만으로 정원의 70%를 뽑고 나머지는 수능(75%)과 학생부(25%)를 평가해 당락을 정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치는 인문계는 언어 25%, 수리 나형 27.5%, 외국어 30%, 사회탐구 17.5%, 경영/경제는 언어 22.5%, 수리 나형 30%, 외국어 30%, 사회탐구 17.5%, 자연계는 언어 17.5%, 수리 가형 30%, 외국어 27.5%, 과학탐구 25% 반영된다.
성균관대	'가'군에서 1057명, '나'군에서 405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의 50%는 수능 100%로 우선선발하고, 나머지 50%는 수능 70%와 학생부 30%로 반영해 선발한다.
세종대	정시모집 '나'군으로 모집하며 무용과만 '가'군으로 별도 모집한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및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은 수능 70%와 학생부 30%가 반영되며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을 제외한 예체능계열은 수능성적, 학생부와 실기고사로 선발한다.
숙명여대	'가·나·다'군에서 분할모집한다. 정시 '가'군 일반학생전형은 인문·자연계 총 565명을 선발하며 모집인원의 50%는 수능성적 100%로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50%는 일반선발로 수능 60%, 학생부 40%를 반영한다. '나'군과 '다'군은 수능성적 100%로 선발한다.
숭실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가'군은 908명, '나'군은 315명, '다'군은 378명 등 총 1601명을 선발한다. 가군은 수능 100%를 적용하며 나군과 다군은 수능 70%, 학생부 30%를 반영한다.
연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667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대다수 학과(인문·자연·의예·치의예)가 수능 성적으로만 전체 인원의 70%를 뽑는다. 나머지 30%는 학생부와 수능을 절반씩 반영해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돼 인문 계열은 언어와 수리 등 4개 영역 중 2개 이상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자연계열은 언어, 수리 등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5 이내이고 수리(가) 또는 과학탐구 중 1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이화여대	정시 '가'군에서 1081명을 선발한다. 스크랜튼 학부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순으로 선발인원의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수능 80%, 면접 2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기타 모집단위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절반을 먼저 뽑고 나머지 절반은 학생수 40%와 수능 60%를 반영해 선발한다.
중앙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가'군은 696명, '나'군은 943명, '다'군은 30명을 뽑는다. '가'군 일반전형은 수능 70%, 학생부 30%를 반영하며 '나·다'군은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한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900명, 용인캠퍼스 792명 등 총 1692명을 선발한다. 서울캠퍼스는 '가'군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스페인어과, 중국학부, 일본학부, 언론정보학부, 국제통상학과, 경제학부, 경영학부, 영어교육과에서 수능만으로 185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715명을 선발하며 모집인원의 50%는 수능점수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수능 80%와 학생부 20%를 반영해 선발한다. 용인캠퍼스는 '다'군 전 모집단위에서 서울캠퍼스 '나'군과 같은 방법으로 선발하며, 자연계는 언어영역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한양대	서울캠퍼스는 '가·나'군에서 976명, 에리카(안산)캠퍼스는 '가·나·다'군에서 1003명을 선발한다. 가군은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의 70%를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는 수능 성적 70%, 학생부 30%를 반영해 선발한다. '나·다'군은 수능 성적만으로 모집인원 전원을 선발한다.
홍익대	서울캠퍼스 정시 일반전형에서 1180명, 기회균등선발 49명, 전문계 고교 졸업자 32명 등 1306명을 뽑는다. 일반전형은 '가·나·다'군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비율이 다소 다르며 예능 부문은 실기 점수(55%)가 반영된다. 기회균등 선발은 수능 70%, 다면평가 30%로 당락을 가른다. 전문계 고교 전형은 대다수 계열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거나(인문·자연) 수능으로 6배수를 뽑은 이후 수능(40%)과 실기(60%)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지방

대학	내 용
전남대	정시 모집 '가'군에서 752명, '나'군 1315명 등 모두 2067명을 선발한다. '가' 군은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며 '나'군은 실기전형과 면접을 치르는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이 수능성적 50%, 학생부성적 50%를 적용한다.
조선대	정시 모집에서 '가'군 456명, '나'군 974명, '다'군 349명 등 총 1779명을 모집한다. '가'군과 '다'군은 수능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나'군은 학생부성적(50%)과 수능성적(50%)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모집단위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가천의대	정시모집 '나'군 191명과 '다'군 140명 등 331명을 뽑는다. '나'군과 '다'군 모두 수능성적 70%, 학생부성적 30%를 반영한다. '나'군의 모든 학과가 수능 외국어 영역 점수를 40% 반영하지만 '다'군에서는 지원자가 얻은 상위 3개 수능 영역 점수를 45대 35대 20으로 반영한다.
강원대	정시 모집 '가'군 444명, '나'군 551명, '다'군 578명 등 모두 1573명을 선발한다. '가·나'군은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능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기준으로, '다'군은 수능성적(최저학력기준 적용)만으로 선발한다. 그러나 사범대는 수능성적(15%), 학생부성적(75%), 면접점수(10%)로 선발하고 예체능계열과 스포츠과학부는 실기시험을 치른다.
경남대	정시 모집 '가'군(군사학과) 25명, '나'군(인문·자연·예체능 계열) 738명, '다'군(인문·자연 계열) 247명 등 모두 933명을 선발한다. 군사학과는 수능성적만으로 1차 선발하고 나서 수능성적(80%), 체력 검정(10%), 면접평가(1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나·다'군에서 인문·자연계열은 수능성적 60%, 학생부성적 40%를, 체육교육과는 수능성적 30%, 학생부성적 40%, 실기고사 30%를, 디자인학부·미술교육과·음악교육과는 수능성적 30%, 학생부성적 30%, 실기고사 40%를 각각 반영한다. 올해는 수리영역 '가'형 응시자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때 수리영역 백분위 성적에 10% 가산점을 준다.
경북대	정시 모집 '가'군 1674명, '나'군 831명 등 2505명을 모집한다. '가'군 일반학과는 수능성적 80%, 교과성적 20%를, '나'군은 수능성적만 각각 반영한다. '가'군 예능계의 음악학과와 국악학과가 수능성적 26.7%, 교과성적 6.7%, 실기성적 66.6%를 반영하는 등 학과별로 전형요소 배점에 차이가 있다. 체육교육과와 레저스포츠학과 등 체능계는 수능성적 40%, 교과성적 10%, 실기성적 50%를 반영한다.
경상대	정시 모집 '가'군 960명, '다'군 501명 등 모두 1천461명을 모집한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일반전형 '가'군의 경우 일반학생은 학생부성적 40%, 수능성적 60%를, 사범대 일반학과는 학생부성적 40%, 수능성적 50%, 면접 10%를, 미술·음악교육과는 학생부성적 30%, 수능성적 20%, 면접 10%, 실기 40%를, 체육교육과는 학생부성적 30%, 수능성적 30%, 면접 10%, 실기 30%를 각각 반영한다. '다'군 일반학과는 수능성적만 반영하고 민속무용학과는 학생부성적 30%, 수능성적 20%, 실기 50%를 적용한다.
경원대	정시 모집에서는 1356명('가'군 368명, '나'군 45명, '다'군 943명(정원 내 805명, 정원 외 104명.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 34명)을 뽑는다. 전문계고졸 재직자 전형에서는 면접만 시행된다. 수능성적 반영비율은 인문계는 언어 40%, 외국어 40%, '사탐' 또는 '과탐' 1과목 20%이고 자연계(일부 학과 제외)는 수리 40%, 외국어 40%, '사탐' 또는 '과탐' 1과목 20%이다. 예·체능 계열은 언어 50%, 외국어 50%이다.
부산대	정시모집 '가'군에서 1306명, '나'군에서 507명을 모집한다. '가'군 일반전형에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은 학생부성적 55%, 수능성적 45%를, 사범대는 학생부성적 50%, 수능성적 45%, 면접 5%를 반영한다. '나'군은 수능성적만 반영한다.
울산과기대	정시모집 '나'군에서 82명을 선발한다. 계열별 모집인원은 이공계열 56명, 경영계열 26명이며 수능성적 90%와 다면 면접 10%를 적용해 선발한다. 수능성적 반영시 이공계열은 수리(가), 과학탐구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경영계열은 외국어, 수리(가 또는 나)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인천대	정시모집 '가'군에서 984명, '다'군에서 정원외 인원 138명을 포함해 최대 388명을 뽑는다. '가'군 인문사회·자연계열은 수능성적 80%, 학생부성적 20%를 반영하고 예체능계열은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거르고 나서 2단계에서 수능성적 40%, 학생부성적 20%, 실기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다'군에 수능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수능우수자 전형(225명)'이 신설됐다.
인하대	정시 모집 '가'군과 '나'군에서 각각 751명, 1119명을 모집한다. '가'군은 수능성적만으로, '나'군은 수능성적 70%와 학생부성적 30%를 반영한다. 수능성적으로 '나'군 최초 합격자의 30%를 우선 선발한다.
전북대	정시모집 '가'군 1020명, '나'군 1077명 등 모두 2097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군은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예체능계 일부를 제외한 '나'군은 수능성적 50%, 학생부성적 50%를 반영한다.
제주대	정시 모집 '나'군 992명, '다'군 815명 등 1807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모집단위별로 수능성적, 학생부성적, 실기 및 면접고사 등 전형요소별 성적을 합산해 뽑고 '다'군에서는 수능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만 '다'군에서도 예능계 모집단위는 수능성적, 학생부성적, 실기고사 등 전형요소 성적을 합산해 뽑는다. '나'군 중 사범대와 교육대, 예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는 학생부성적 50%, 수능성적 50%를 반영한다.
충남대	정시 모집 '가'군(인문·자연·예체능계) 1751명,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인문·자연·예체능계) 995명, 정시모집 '나'군 농어촌 학생 전형 50명 등 2796명을 선발한다. 예체능계 일부를 제외하면 '가'군은 수능성적으로만, '나'군은 수능성적 60%와 학생부성적 40%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충북대	정시 모집 인원은 '가'군 957명(전공 적성 우수자 50명 포함), '나'군 587명 등 모두 1544명이다. 전형 요소별 점수 반영 비율은 '가'군의 인문계, 자연계는 수능성적 60%, 학생부성적 40%, 사범대 인문계·수학교육과는 수능성적 55%, 학생부성적 40%, 교직적성 5%이며 '나'군 인문계·자연계(수리가형)는 수능성적 100%이다.
한국항공대	정시모집 정원내 일반학생전형에서 '나'군 178명, '다'군 178명을 수능 60%, 학생부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공학계열은 수리 40%, 외국어 35%, '과탐' 또는 '직탐' 25%이고 이학계열은 수리 35%, 외국어 40%, '탐구' 25%이다. 또 인문계열은 언어 35%, 외국어 40%, '탐구' 25%다.
한림대	정시모집 '가'군 190명, '나'군 196명, '다'군 381명, 국제학부 12명을 모집하며 체육학부와 국제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가 수능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체육학부는 수능성적(50%)과 실기(50%)를 반영하고 국제학부는 서류(40%)와 면접(60%)으로 뽑는다. 자연계열과 공대의 경우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응시자에게는 7%, 3~5%의 가산점을 준다.